

- 본문 말씀 | 창세기 1장 1-5절
- 결단 찬양 |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주께서 다스리네”

올 한해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예배로 살어나길 소망해요.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설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첫사랑’, ‘첫 만남’, ‘첫 등교’, ‘첫 작품’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했던 모든 일이 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2021년 첫 번째 주일, 새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1

절 취 선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나요? 학창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어디부터 읽나요?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서론부터 읽기도 하고, 중간에 한 지점으로 넘겨볼 수도 있어요. 또는 결론부터 확인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책의 어느 부분부터 읽어나가도 물론 다 괜찮지만, 우선 서문을 꼼꼼히 읽어 보는 방법이 좋아요. 서문에는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 잘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서문을 잘 읽으면 책을 대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어요.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도 유심히 보면 좋아요. 첫 번째 단어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작가가 글을 쓸 때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첫 문장이라고 해요. 그만큼 시작하는 첫 문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되겠지요?

2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지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게다가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나아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핵심 주제를 담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편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다시 한 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 보도록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예요. 그런데 이 네 개의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선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나름의 근거로 추정할 뿐이에요. 반면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은 어떤가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인 ‘천지’는 어떤가요? 이 단어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우주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만물을 뜻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질학자도, 위대한 탐험가도 천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마지막 단어인 ‘창조’는 어떤가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창조 또한 인간인 우리는 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성경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다시 한 번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 설명할 때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실제로 창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재료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창밖에 보이는 나무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의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한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가공하여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정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두를 그 어떠한 것의 도움 없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다스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 법칙을 부여해서 저절로 진행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으셨다고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절대 자연이 파괴되거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주장에서 비롯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 다스리지 않으실까요? 그저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시계 만드는 데 평생을 보낸 어떤 장인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시계를 조립하고 고치다 보니, 눈 감고도 시계를 수리하는 경지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분이 노안으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이 장인은 앞으로도 시계는 계속 만들고 수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볼 일이 있을까요? 시력의 이상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니 더 이상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이 눈 먼 시계공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 놓긴 하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관여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떴신 적이 없으세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스리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은혜임을 기억하세요. CCTV가 범죄자에게는 싫은 도구겠지만 선한 이들에게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도구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불편하겠지만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은혜와 힘, 능력, 따뜻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야만 해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바르게 세워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 가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일도 얼마든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자세예요.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는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며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